

2025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상반기 교육연수 결과보고서

지속가능 미래도시 전략수립과 재난안전 시스템 선진사례 연구

주최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기간 2025년 6월 8일(일)~6월 12일(목)

지역 일본(나고야, 오사카)

CONTENTS

1 연수 개요	04
2 연수 참가자	06
3 연수 주요 일정	09
4 방문지 연수 주요내용	11
1) 나고야대학 대학원 환경학연구과	12
2) 공익법인 나고야마을 만들기 공사/나고야도시 센터	16
3) 효고현 내진공학연구센터	22
4) 오사카 후세 마을	27
5) 나라현 아스카무라 마을	33
5 사례조사	38
1) 모드 학원 스파이럴 타워즈	39
2) 교토역	41
3) 링크 타운	43
4) 오사카-간사이 엑스포(EXPO 2025 OSAKA)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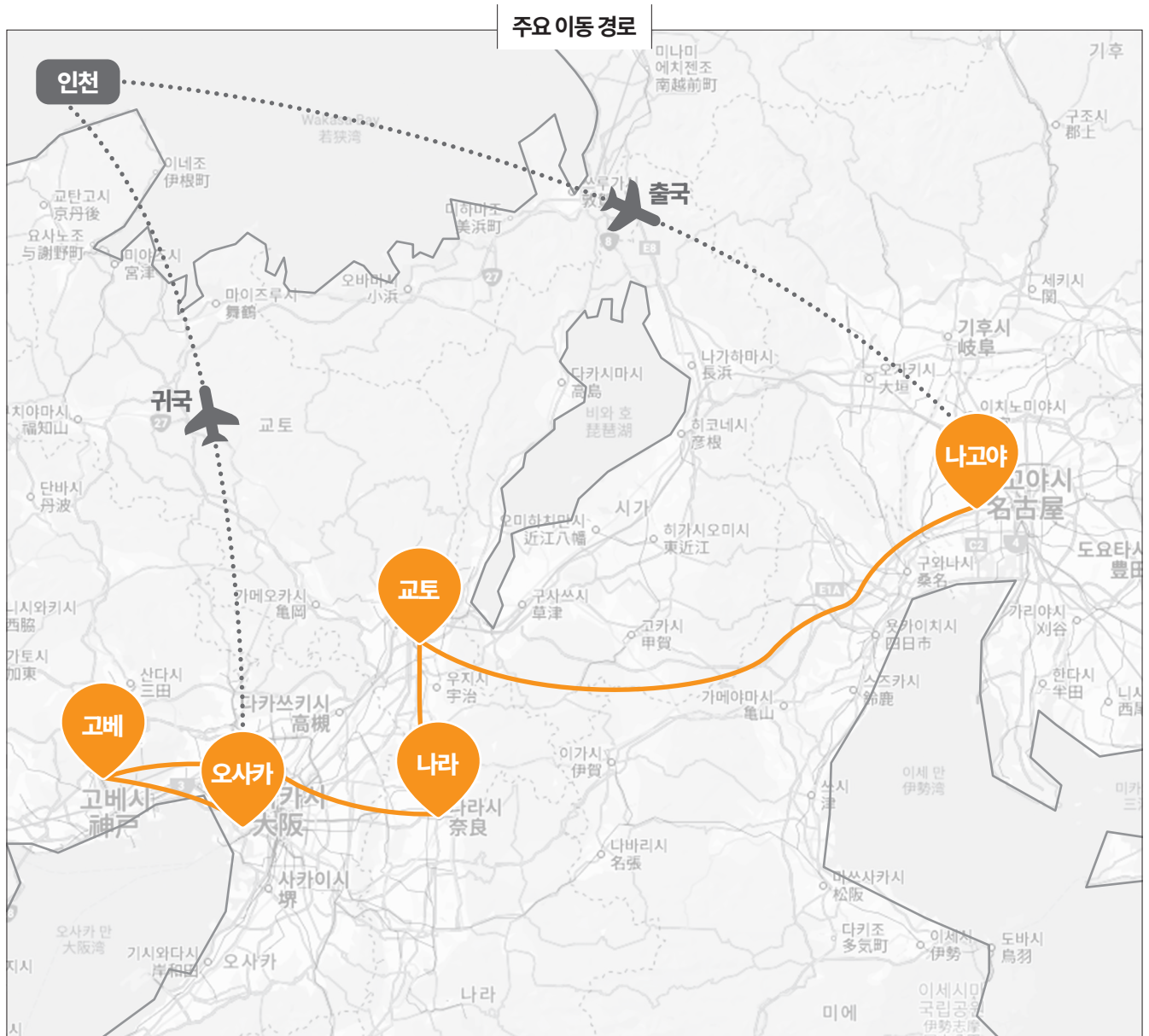


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 기간 2025년 6월 8일(일)~6월 12일(목) / 4박 5일
- 연수지역 일본(나고야, 오사카)
- 참가인원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기관장 및 직원 66명
- 연수목적
 1. 환경, 교통, 도시계획 융복합 연구 기관 간 연구지식교류
 2.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디자인 탐구 및 최신기술 벤치마킹
 3. 재난안전시스템 선진사례 경험을 통한 재난관리분야 역량강화



연수
참가자

2

No	기관	직위	성명
1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영호
2	강원연구원	4급행정원	박승주
3	강원연구원	재무회계팀장	조수진
4	경남연구원	미래전략팀장	이문호
5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정책팀장	동진우
6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임규채
7	경북연구원	감사실장	김중표
8	광주연구원	실장	양철수
9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욱
10	광주연구원	연구원	박주연
11	대구정책연구원	1급관리원	전형일
12	대구정책연구원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신우화
13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	서상언
14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염인섭
15	대전세종연구원	계장	김영호
16	대전세종연구원	주임	김수진
17	대전세종연구원	주임	정유연
18	대전세종연구원	주임	김영기
19	부산연구원	원장	신현석
20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	장하용
21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요바
22	부산연구원	관리원	김명진
23	부산연구원	사무원	최진호
24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25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강재도
26	서울연구원	팀장	지서해
27	서울연구원	책임	김영민
28	서울연구원	책임	박진선
29	서울연구원	책임	윤정희
30	서울연구원	책임	장윤우
31	서울연구원	주임	김남현
32	서울연구원	주임	한종민
33	울산연구원	원장	편상훈
34	울산연구원	주임	김영수
35	울산연구원	주임	이준혁

No	기관	직위	성명
36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37	인천연구원	경영감사팀장	김선희
38	인천연구원	연구지원팀장	박미연
39	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40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신
41	전남연구원	사무직	정명길
42	전남연구원	행정원	김연우
43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장성화
44	전북연구원	자치복지교육팀장	이중섭
45	전북연구원	인사복지팀장	문민선
46	전북연구원	연구원	송용호
47	제주연구원	부원장	박원배
48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장	정지형
49	제주연구원	행정사무원	현혜진
50	충남연구원	원장	전희경
51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김영일
52	충남연구원	인사복지팀장	김성운
53	충북연구원	원장	김영배
54	충북연구원	연구행정과장	김은형
55	충북연구원	4급사무원	조솔영
56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강성조
57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장	한진석
58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필주
59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	남지윤
60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임	이승완
6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이소영
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최지민
6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팀장	탁영지
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분석원	조현민
6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무직	장순옥
6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무직	원혜정



3

연수 주요 일정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1일차 6/8(일)	인천 나고야	항공 전용버스	08:00 10:35~12:30 12:30~13:30 13:30~14:30 15:00~16:00 16:30~17:30 18:00~19:00 19:00	▪ 집합: 인천 국제공항 ▪ 출국: 인천→나고야 (KE 741 10:35- 12:30) ▪ 김해→나고야 (LJ 375 08:40- 10:10) ▪ 도착 & 이동 ▪ 중식 & 이동 ▪ [사례조사 1] 나고야 도시 건축 및 랜드마크 탐방 ▪ 석식 & 간담회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2일차 6/9(월)	나고야	전용차량	09:00 10:00~12:00 12:00~13:30 14:00~16:00 18:00~19:00 19:00	▪ 조식 및 이동 ▪ [기관방문 1] 나고야 대학 대학원 환경학연구과 - 교수 및 연구진 간담회/대학 탐방 등 ▪ 중식 & 이동 ▪ [기관방문 2] 나고야 도시센터 - 나고야 지역 재개발 등의 사례 세미나 & 견학 - JR 타워: 나고야역세권 재개발 전체 조망 ▪ 석식 & 간담회 ▪ 호텔 복귀 및 휴식
3일차 6/10(화)	나고야 교토 나라 오사카	 전용차량 신간선 전용차량	09:00 09:41~10:15 11:00~12:00 12:00~13:30 13:30~15:00 15:00~16:00 16:00~17:00 18:00 19:00	▪ 조식 및 이동 ▪ 이동: 나고야→교토역(신간선 이동) ▪ 교토역 도착 이동 ▪ [사례조사 2] 교토 문화유산 건축 및 랜드마크 탐방 ▪ 중식 후 이동 ▪ 이동 (교토 → 나라 / 약 1시간) ▪ [사례조사 3] 나라 지역관광활성화 사례지 탐방 ▪ 오사카 도착 후 호텔 체크인 ▪ 석식 & 간담회
4일차 6/11(수)	오사카 고베 오사카	 전용차량	09:00 10:00~12:00 12:00~14:00 14:00~17:00 18:00~20:00 20:00	▪ 조식 및 이동 ▪ [기관방문 3]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효고현 내진공학연구센터) - 간담회/시설 탐방 등 ▪ 중식 & 이동 ▪ [기관방문 4] 오사카 후세 마을 ▪ [기관방문 5] 나라현 아스카무라 마을 ▪ 석식 & 간담회 ▪ 호텔 복귀 및 휴식
5일차 6/12(목)	오사카 인천	전용차량 항공	09:00 09:30~12:00 12:00~14:00 14:00~15:00 15:00~15:30 15:30~	▪ 조식 및 이동 ▪ [사례조사 4]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참관 - 전시회 명: EXPO 2025 OSAKA, KANSAI, JAPAN - 장소: 大阪 夢洲(ゆめしま) ▪ 중식 & 이동 ▪ 귀국준비 ▪ 오사카 공항 이동 및 도착 ▪ 수속 및 귀국: 오사카 국제공항→인천(KE 726 18:20-20:10) 오사카 국제공항→김해(LJ 254 17:35-18:55)



4

방문지 연수 주요내용

나고야 대학 대학원 환경학연구과

1. 개요

- 설립 2001년
- 홈페이지 <https://www.env.nagoya-u.ac.jp/english/>
- 주소 D2-1(510), Furo-cho, Chikusa-ku, Nagoya, JAPAN 464-8601
- 주요 내용 환경, 도심 건축 등의 전문 대학원
- 담당자 名古屋大学大学院環境学研究科 佐藤健一教授
- 연락처 +81 52-789-3454

2. 방문지 주요내용

나고야 대학 대학원 환경학연구과는 2001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문리융합형 대학원 연구과로, 이학, 공학, 인문사회과학의 세 분야를 통합하여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연구과는 지구환경과학전공, 도시환경학전공, 사회환경학전공의 세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공은 전문성과 융합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연구과의 핵심 이념은 "지속성학(持続性学)"과 "안전·안심학(安全・安心学)"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념 아래,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원이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名古屋大学大学院
環境学研究科

(1) 대학원 환경학연구과 (방문기관)

도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이학, 공학, 인문 사회 분야를 결집한 인문사회·이공학 융합형 대학원 (2001년 개설, 일본 최초 융복합형 대학원)

- 구성: 지구환경과학전공, 사회환경학전공, 도시환경학전공, 지진화산연구센터, 지속적 공생발전교육연구센터
- 지구환경학전공: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구환경 관측·평가·진단 가능한 인력 및 기술 개발
 - ※ 협의회와 관련 분야: 기후 및 지구 환경 변화를 물리적·화학적 분석
- 사회환경학전공: 인문적(환경정책, 경제, 법, 사회학)접근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 도시환경학전공: 교통, 도시계획, 인프라 관리, 안전·안심학, 생태학, 화학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 ※ 협의회와 관련 분야: 협의회 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연구함

(2) 감재연대연구센터 (방문시설)

일본 남해 해구 거대지진과 풍수해를 대응하기 위한 산·관·학·민 지역 밀착형 피해 경감 전략 수립, 관련 기술개발 연구, 인재양성 기관

- 연구영역: 지진·화산 관측 연구, 활성단층·지진단층 연구, 강진동 연구, 재해정보 연구, 토목구조·지반재해 연구, 수재해경감 연구, 내진건축연구, 재해의료·심리 연구, 재해환경 관리 연구, 경제피해·사업연속성 연구, 지역방재력 연구, 도시계획, 방재교육 연구
- 대시민 교육
 - 1) 방재아카데미: 방재관련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월 1회~2회 정도 방재관련 대시민 교육
 - 2) 감재카페: 일반시민·학생과 연구센터 연구자와 대화형식의 교육프로그램 (월 1회)
 - 3) 갤러리톡: 일반시민 대상으로 지진, 풍수해, 지반재해, 사회재난 관련 전시물에 대해 설명 (월 15회 이상, 13:30~14:30)
- 주요 견학 시설: 재난대응 정보, 고층건축물 진동 체험, 면진장치 견학 등



체험 시설 및 로비 전경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1) 융합형 환경정책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필요

일본 나고야대학교 환경학연구과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대학원 내에서 통합 운영되며, 복합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교육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정책 제언: 국내에도 융합형 환경정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국립대학 중심의 융합대학원 확대 또는 시도연구원과 연계한 '지역형 환경문제 해결 교육 플랫폼'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정책 거버넌스 강화

일본은 지역별 기후·지형·사회구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예: 토야마시의 압축형 도시계획, 세타가야구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등. 반면에 우리나라는 환경 정책의 기획·재정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정책 제언: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 모델'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재정 자율성 보장, 지역 거버넌스 체계(민·관·학)의 제도화가 중요함.

(3) 과학 기반의 정책 설계 및 평가체계 강화

일본의 환경정책은 위성자료, 기후모델링, 지질 분석 등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계되며, 지역 리스크 평가와 중장기 대응 시나리오가 체계화되어 있음.

- 정책 제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지자체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필요함.

(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전환

일본은 환경문제를 단지 '자연 보전'이 아니라 지역 인구감소, 산업 쇠퇴, 도시 축소 등과 연결된 종합적인 지역 발전 이슈로 인식함.

지속가능성은 이제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에너지 자립, 친환경 인프라, 커뮤니티 회복력 등의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됨.

- 정책 제언: 지역정책 전반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연구원 차원에서 '지역 지속가능성 진단지표' 개발, '지역 SDGs(Local SDGs)'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함

(5) 시도연구원의 역할 재정립 및 국제협력 확대

일본의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정책 자문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정책 설계와 실행에 관여하며, 중앙정부와 지역 간 가교 역할을 수행.

- 정책 제언: 시도연구원이 지역 기반 융합정책 연구 거점의 기능을 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역량을 다학제적으로 재구성하고, 국제연수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4. 방문지 주요 현장 사진



공익법인 나고야 마을만들기 공사 / 나고야 도시 센터

1. 개요

- 설립 1996년
- 홈페이지 <https://www.nup.or.jp/nui/>
- 주소 Aichi, Nagoya, Naka Ward, Kanayamacho
- 주요 내용 나고야시의 도시 개발과 지역의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선도 기관
- 담당자 企画課 과장 上野 高稔
- 연락처 +81 52-678-2208

2. 방문지 주요내용

(1) 대학원 환경학연구과 (방문기관)

나고야 마을만들기 공사는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나고야시의 도시환경 정비, 지역활성화, 마을만들기 추진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고야 도시센터는 이 공사의 활동 거점이자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도시공사는 1996년 도시센터의 설립과 함께 나고야시로부터 도시계획 지원을 위탁받으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나고야시의 도시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중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사는 도시행정의 전문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지역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2.1 도시계획 및 정책 지원

나고야시의 중장기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지역구 단위 도시비전 수립 등에서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교통정책, 경관관리 등의 구체적인 도시정비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업무도 병행한다.

2.2 도시정보제공 및 시민교육

나고야도시센터를 통해 도시정책 관련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도시계획 도서관 운영, 출판물 발행, 학교와 연계한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1층: 마을 만들기 광장

11階: まちづくり広場

지상 50m 높이에서 나고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地上50mの高さから名古屋市内を一望できます。



12층: 마을 만들기 라이브러리

12階: まちづくりライブラリー

전국에서도 드문, 마을 만들기의 전문

도서관입니다.

全国でも珍しい、まちづくりの専門図書館です。

발표 자료 발췌

2.3 마을만들기 지원 및 지역 활성화

지역 주민, NPO, 기업 등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공간 활용, 빈집 재생, 소규모 상업활동 유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보조금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2.4 복합시설 운영 및 공간관리

나고야도시센터, 지역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 등의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도시활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イノベーションフロア（12～14階）における全体像〉

- ・12～14階をハード（吹抜+象徴的な大階段）で繋ぎ合わせる事で機能間の連携を促進
- ・ライブラリー・カフェ区画や会員制コワーキングラウンジ区画など各ゾーンにて多様な交流を誘発する仕組みを備え、パブリック性の高い12階から、内部吹き抜け階段を上る毎にプライベート要素を高める構成とする。
- ・13階において、CO&COが主体となった企業対象の学びやコミュニティ形成のイベントを今後企画予定で、内部階段で繋げている14階の小割区画テナントをはじめ、基準階の各テナントに加えて、外部の企業にも焦点を当てたイベントとする事でビジネス創出拠点を目指す。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의 제공

(3) 주요 특징

3.1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

나고야 마을만들기 공사는 나고야시 행정조직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되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3.2 지역밀착형 운영

공사는 나고야 전역에 걸친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행정구 단위의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3.3 지속가능성과 참여 기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계획 수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공개 회의, 의견수렴, 시민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4) 도시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

나고야시 마을만들기 공사는 도시활성화와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다양한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도심재생 프로젝트 : 중구, 나카무라구 등 중심지에서 빈점포 활용, 거점 공간 조성,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으로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중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

- 노후주택지역 리노베이션 : 고령화가 진행 중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빈집의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시설화, 안전통로 정비 등을 통해 거주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노후 지역 리노베이션 사례

- 청년·예술가 유입 전략: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예술가나 스타트업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의 지역 정착과 창조적 활동 유도를 병행하고 있다.



청년 예술가 유입을 위한 코워킹 및 공간 제공

- 지역자산 활용형 마을만들기: 전통문화, 역사적 경관, 지역산업을 재해석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과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 형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1) 도시재생의 전략 축을 '거버넌스'로 전환

일본의 나고야 마을만들기 공사는 단순한 도시정비 행정조직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전문가와 주민이 상호작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해 나가는 '거버넌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지자체의 사업 집행이라는 단선적 구조에 머무르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임

- 정책 제언: 도시 문제는 복잡하고 상호연관된 성격을 가지므로,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시민 참여형'·'시민 설계형 도시재생' 전환되어야 하며,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 전문가와 주민이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고, 중간지원조직(예: 지역 도시재생센터)의 기획 역량 강화 필요.

(2)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생활권 중심' 정책 전환 필요

나고야 마을만들기 공사는 전 도시권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행정구 단위의 과제와 자산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심지역은 상권 재생과 청년 유입, 주거지에서는 고령친화 리노베이션, 전통마을은 관광자산 활용 등 지역의 특성과 변화 속도에 따른 세분화된 전략이 적용되고 있음.

- 정책제언 : 물리적 기반 진단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변화역량을 고려한 복합적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행정구 단위 생활권 중심 도시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소규모 실천과 지역자산 중심의 '로컬 이노베이션'으로 도시 활력 회복

나고야 공사는 대규모 재개발 방식보다는 빈집 활용, 소규모 창업공간 조성,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 등 소규모 프로젝트를 연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음. 이는 특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나 인구 감소지역에서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됨.

- 정책제언 : 대규모 공공투자 중심의 일회성 사업보다, '작은 변화의 누적'을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책이 중요함.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형 마을계획제도, 지역자산 활용 주민제안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율성 기반의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 병행 필요.

(4) 청년층과 창조인력 유입을 통한 도시 재생 동력 확보

나고야 공사는 청년, 예술가, 창업가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통해 도시 공간에 창조성과 활력을 주입하고 있음. 유희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를 매개로 새로운 커뮤니티와 창의적 콘텐츠를 형성하는 모델은 '공간 복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복원'까지 이뤄내고 있음

- 정책제언 :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지방도시에서도 단순한 인프라 정비보다 젊은 층의 정착을 유도하는 공간 및 제도 설계가 필요함.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공공임대공간 운영,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친화형 도시재생 전략수립이 필요함.

(5) 시도연구원의 역할 정립: 정책 실험과 거버넌스의 허브로 전환

나고야 마을만들기 공사처럼, 지방정부 외부에 있으면서도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독립적 중간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정책제언 : 정책 아이디어의 실증 적용과 시민·공공 간 중재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싱크탱크의 역할 수행. 시도연구원이 지역 내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로컬 정책에 있어 계획-실행-평가의 전 주기에서 기능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량 재정비 필요.

— 4. 방문지 주요 현장 사진



효고현 내진공학연구센터

1. 개요

- 설립 1998 년
- 홈페이지 <https://www.bosai.go.jp/hyogo/index.html>
- 주소 〒673-0515 兵庫県三木市志染町三津田西亀屋1501
- 주요 내용 일본 내진 전문 연구 개발 기관
- 담당자 兵庫耐震工学研究センター 高橋健司主任研究員
- 연락처 0794-85-8211

2. 방문지 주요내용

(1) 내진공학연구센터 소개

효고현 내진공학연구센터(兵庫耐震工学研究センター, Hyogo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E-Defense)는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 방재과학기술연구소(防災科学技術研究所, NIED: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물 진동 실험 시설이다. 효고현 미키시(三木市)에 위치하며, 1995년 고베 대지진(한신·아와지 대지진)의 참사를 계기로 1998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대규모 지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와 피해 저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진재해에 강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E-Defense”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진 이 연구센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물 크기의 건축물, 교량, 기계설비 등을 실제 지진에 가까운 조건으로 흔들 수 있는 실물 진동대(Full-Scale 3D Shake Table)를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2.1 실물 진동 실험

연구센터의 대표적인 업무는 실물 진동 실험이다. 주거용 건축물, 고층빌딩, 교량, 병원, 발전소 설비 등 다양한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실물 크기로 평가하고, 진동 데이터와 파괴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내진 설계 기준의 정비와 개선을 지원한다. 실험은 주로 기존 설계 기준의 검증 및 개선, 새로운 내진 기술 및 재료의 성능 평가, 노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효과 검증, 지진 시 화재 및 연쇄 붕괴 방지 대책 평가 목적으로 진행된다.

2.2 지진 재해 시뮬레이션 및 분석 기술 개발

지진 재해의 정량적 예측과 피해 경감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반 특성에 따른 구조물의 반응 분석,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피해 예측 알고리즘 등이 연구 중심이다.

2.3 방재 교육 및 정책 자문

연구센터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내진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내진 성능 기준 개정, 지진 대비 도시계획,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정책 기반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방재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대상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회 전반의 방재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4 국제 협력 연구 및 기술 공유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세계은행, 미국의 NEES 등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 구조물의 내진 실험이나 일본의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내진공학연구센터 주요특징

3.1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실물 진동대

효고현 내진공학연구센터의 핵심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실물 진동대다. 이 진동대는 길이 20m, 폭 15m, 적재하중 최대 1,200톤까지 견딜 수 있으며, 3차원(전후, 좌우, 상하)의 진동을 정밀하게 구현한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구조물에 가해지는 실제 움직임을 고정밀로 재현할 수 있다. 기존의 모형 실험과 달리, 실물 크기의 구조물을 시험함으로써 보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3.2 고베 대지진의 교훈을 반영한 설계와 연구 방향

이 센터는 1995년 고베 대지진에서의 대규모 건축물 붕괴, 교량 파괴, 주택 밀집지역 화재 등의 피해를 토대로, 단순한 이론 검증이 아닌 '현실 기반의 재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존 설계 기준의 검토 및 개정뿐만 아니라, 지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피해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연구가 진행된다.

3.3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 거점

내진공학연구센터는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정보과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기관이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국제 협력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며, 글로벌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시설 개요>

효고내진공학연구센터(도시공간내진공학연구본부, 방문기관)

- 세계최대규모 진동대가 설치된 연구센터
 - ※ 진동대: 지진을 모사하기 위한 장치 (크기: 15m X 20m, 최대적재하중: 1200 tonf)
-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해 구조물의 붕괴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하여 2005년부터 운영
- 실제크기의 실험체(건축물 또는 구조물)를 제작하고 지진모사 실험을 수행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대응 기술 또는 설계기준 고도화
- 주요 실험 프로젝트
 - 1) 기존 저층 목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2층 목구조)
 - 2) 학교 내진보강 효과 검증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3) 면진 건축물 안전성 평가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4) 차세대 내진시스템 개발 및 검증 실험 (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5) 일본내진설계기준 기반 10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 6) 고성능 철근콘크리트 내진 상세 개발 및 내진성능 검증 실험 (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 실험체 크기: 기준층 평면 12m X 8m, 높이 약 28m, 중량 1,200tonf
- ※ 실험비: 약 25억원 (실험체 제작 15억, 지그 제작 5억, 계측 및 장비 운영: 5억)
- ※ 연구성과: 일본 건축학회 설계지침 개정 → 일본 설계기준 변경, 미국 ACT 지침 개정



기존 목조주택 내진실험



기존 목조 학교건축물 내진실험



철근콘크리트 학교건축물 내진실험



10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내진실험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1) 실물 기반의 내진 실험을 통한 과학적 정책 설계 체계 강화

E-Defense는 세계 유일의 실물 크기 구조물 진동 실험장으로서, 기존 설계 기준의 한계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왔음. 이는 정책이 이론과 추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계 되도록 만든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

- 정책제언 :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실험의 실물 스케일의 구조물 실험은 미비한 상황임. 대규모 지진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실험 기반 정책 시스템이 요구됨. 국내에 실물 진동 실험이 가능한 연구 인프라 또는 국제공동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내진 성능평가 방식의 고도화 추진 필요

(2) 고위험 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내진 보강 전략 강화

센터의 실험 프로젝트 중에는 학교, 병원, 다층 RC 건물 등 공공성과 인명 영향도가 큰 시설에 대한 내진 실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는 지진 발생 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우선순위 기반 정책 전략의 일환임.

- 정책제언 : 우리나라도 학교,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필수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이 추진 중이지만, 설계 기준 및 실제 성능 간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 특히 저층 목조건물, 노후건물에 대한 실증 기반 보강 전략 수립이 필요함.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대상 선정 시 구조별·연령별 리스크 평가 기준을 세분화.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 내진 성능 DB 구축 → 시설 유형별 보강 우선순위 설정

(3) 지진 시뮬레이션 기술과 데이터 기반 도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E-Defense는 지반 특성, 구조물 유형, 지진 규모 등에 따른 정량적 피해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 모델링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단순 내진'에서 나아가 도시 전체의 복합 재해 대응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으로 확장함.

- 정책제언 :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포항 등 도시 지역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 단위의 구조물-인프라 연계 시뮬레이션 체계는 아직 미비함. 도심지 내 주요 기반시설(교량, 지하철, 송전망 등)의 연계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및 지진 발생 시 연쇄 피해 예측 모델 개발 필요. 국토부, 행안부, 기상청,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간 연계된 지진 시나리오 종합 플랫폼 운영필요.

(4) 재난 대응 기술의 국제공유 및 지역 맞춤형 설계기준 개발

E-Defense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과 공동 실험 및 지침 공유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의 실험 결과가 설계기준 개정, 법령 개선으로 실제 반영되고 있음.

- 정책제언 : 우리나라도 국제 협력과 데이터 기반 검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지진 복합 재난에 대비한 통합 설계기준이 중요해지고 있음. 국제공동 실험 및 설계지침 협의체 참여 확대 필요. 기후-지진 복합재난에 대응 가능한 한국형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침 개발 추진 필요.

(5) 방재 교육 및 시민 인식 강화

내진공학연구센터는 일반인을 위한 방재 교육과 공무원·전문가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정책제언 : 지진 대피훈련은 형식화되기 쉬우며, 내진 설계의 중요성은 일반 시민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음. 기술적 대응 외에도 시민의 이해·수용·행동 전환이 동반되어야 재난 대응력이 확보됨. 구조·기술 중심의 방재 교육에서 행동 기반 시민교육 체계로 전환. 지방정부 단위의 내진캠페인, 체험형 모의훈련, 지역 기반 재난대응 훈련센터 운영 확대 필요.

— 4. 방문지 주요 현장 사진





오사카 후세 마을

1. 개요

- 인구 약 552명
- 홈페이지 <https://fuse.osaka.jp/>
- 주소 大阪府中河内郡にあった町
- 주요 내용 오사카 부도심 후세 마을의 지역상권, 숙박, 커뮤니티 '융합형 재생모델'
- 담당자 東大阪市布施地域活動センター 山本翔太 主任
- 연락처 06-6783-3774

2. 방문지 주요내용

(1) 후세마을 소개

오사카 후세 마을(大阪 布施町)은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Higashi-Osaka City)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에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었으나 현재는 히가시오사카시에 포함되어 있는 동네다.

후세는 오사카 도시권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부터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로 기능해 온 전통 깊은 지역이다. 에도 시대에는 주변 농촌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물, 금속 가공 등 중소 제조업의 집산지로 발전했다.

현대의 후세는 전철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 중심지로, 긴테쓰(近鉄) 철도 노선이 통과하며 오사카 도심 및 나라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일찍이 주거지와 상업지로서의 기능이 발달했으며, 현재는 주택가와 전통 시장, 소규모 상업지구가 혼재한 구조를 가진 지역이다.

후세 마을은 오사카 대도시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컬 커뮤니티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전통적인 상점가와 노포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지역주민 중심의 소규모 축제나 커뮤니티 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정체성이 뚜렷한 편이다.



(2) 후세마을의 쇠락

100년을 이어온 후세 상가의 영광도 일본에 불어닥친 저출생·고령화 바람을 버티지 못했다. 인구 감소로 후세 역 이용객이 줄자 매출이 떨어졌다. 여기에 긴 경기 침체로 히가시오사카 중소기업 단지 회사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상가는 타격을 받았다. 새 도심에 대형 쇼핑몰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후세 대신 난바(難波)와 우메다(梅田)를 찾기 시작했다. 끝내 점포는 줄줄이 문을 닫았고 후세를 대표하던 극장도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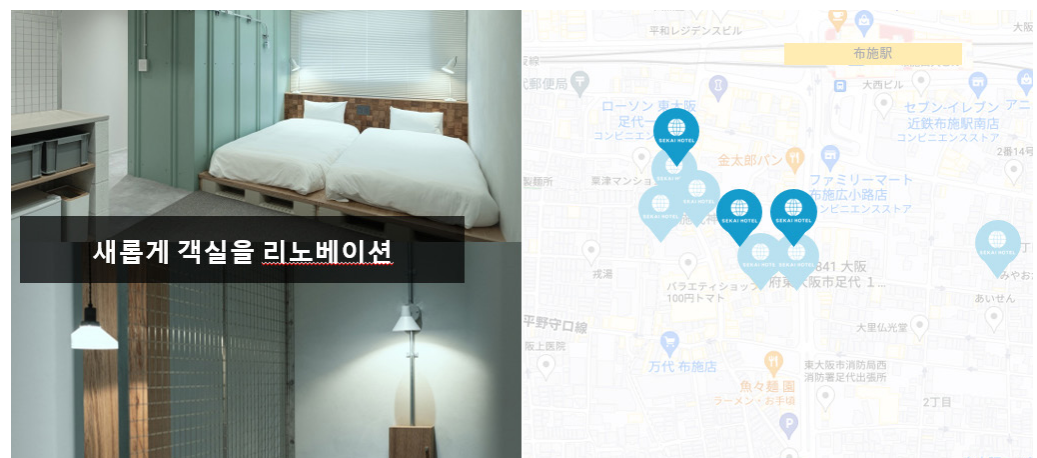
상가가 쇠락하자 상인들은 낡은 점포와 집을 버리고 떠났다. 후세 상점 대부분은 1층을 점포로 쓰고 2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목조형 주택으로 일종의 주상 복합주택이다. 후세가 속한 히가시오사카시의 빈집률은 16.3%로 일본 전국 평균(13.8%), 오사카부 평균(14.3%) 빈집률을 넘어선다.

(3) 후세 마을 활성화 내용

3.1 지역상가의 호텔의 복합- 상가 골목에 문 연 호텔·객실·식당 모두 빈집 활용



- 줄줄이 셔터를 내린 '삿타도오리(シャッター通り·폐점해 셔터내린 가게들이 많은 거리)' 틈에서도 몇몇 상점들은 곳곳이 매장을 지켜냈다. 100년 간 문을 연 제과점, 91년 전통 일식집, 창업 70년 튀김 가게, 90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시치미 매장은 여전히 후세에서 손님을 맞는다. 2018년 후세 상가 골목에 문을 연 '세카이 호텔'은 후세 노포의 전통과 역사에 주목했다.
- 세카이 호텔은 마을 곳곳에 방치된 목조 주택을 개조해 객실로 만들었다. 호텔 프론트도 옛 여성복 매장을 활용한다. 옛 모습을 남기기 위해 호텔 간판도 옛 여성복 매장 그대로 뒀다. 객실로 바뀐 상가 주택은 모두 7곳으로 현재 추가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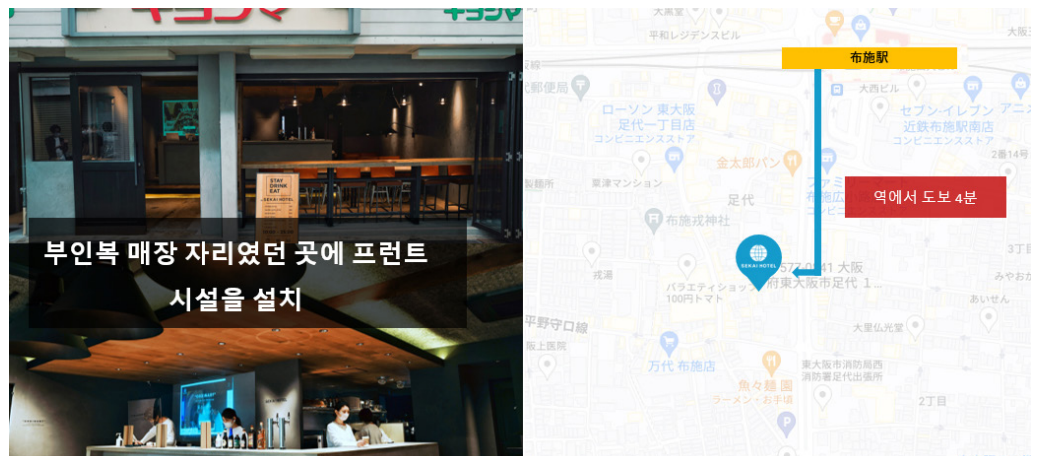
- 호텔은 객실만 운영할 뿐 다른 호텔과 달리 레스토랑과 카페, 사우나와 같은 별도 시설은 갖추지 않았다. 대신 인근 식당과 목욕탕, 커피숍과 같은 상점과 제휴를 맺고 숙박객에게 이용을 권한다. 조식은 인근 카페에서, 석식은 인근 이자카야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 식사 패키지를 예약한 숙박객은 추가 비용없이 제휴 식당을 골라 이용하면 된다. 객실 목록 시설과 별개

로 숙박객에게는 동네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준다.

- 이른바 '세카이 패스'로 이용 가능한 상점은 8곳이다. 제휴 여부는 상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상생 협력 모델이기 때문에 제휴로 매출이 오른다 해도 이윤 배분 등 호텔과 상점 간 금전 거래는 일체 이뤄지지 않는다.

<“상가 전체 활성화가 호텔 설립 취지”>

- 호텔 제휴 상점이 아니더라도 검증된 가게는 숙박객 추천 리스트에 올리고 방문을 권한다. 지난 3일 만 난 세카이 호텔 후세 프로젝트 매니저 키타가와 마리씨(25)는 “후세를 몰랐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와 마을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호텔의 설립 취지”라며 “제휴 점포가 아니더라도 추천한 곳에서 방문객이 만족하면 그것만으로도 호텔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후세의 좋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 상가 마을을 통째로 거리 호텔로 쓴다는 구상은 5년여 만에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숙박객은 5438명으로 2018년 310명에서 17배나 뛰었다. 외국인 숙박객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일본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 주변 상점의 매출도 오르고 있다. 제휴 상점의 이용 횟수는 2018년 14회에서 지난해 3671회로 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성공적인 빈 집 활용 모델 중 하나로 세카이 호텔을 선정했다.
- 호텔 매니저 키타가와 마리씨는 “마을 전체가 소화할 수 있는 관광객 수는 하루 76명 정도”라며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되 후세를 찾는 이유가 호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 후세 마을의 부활이 주는 의미

1) 상업과 전통시장

세 지역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전통 상점가의 존재이다. "후세 상점가(布施商店街)"는 이 지역의 중심 상업지로서 다양한 식료품점, 전통 식당, 의류점 등이 밀집해 있다. 이 상점가는 과거 오사카 상업문화의 일부를 현대에까지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상점과의 연계하여 만드는 마을 만들기

2) 지역커뮤니티와 전통 행사

후세는 주민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연중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이벤트가 개최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여름 마츠리(축제)가 열리며, 상점가 중심의 세일 이벤트나 지역 청소 캠페인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외부인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로 작용한다.

3) 도시화 속 전통적 정체성 유지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비교적 낮은 고층건물 밀도와 좁은 골목길, 오래된 목조건물 등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이는 근대화 이전의 일본 도심 주거지 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점이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대학이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일본의 옛 동네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규모 투어가 운영되기도 한다.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1) 지역 자산의 재해석에서 출발하는 지역재생

후세 마을은 고령화, 인구감소, 중소사업 침체라는 복합적 쇠퇴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전통 자산과 일상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재생 모델을 제시함. 과거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정책제언 : 지역 쇠퇴를 단순한 경제·물리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자산을 재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기억 기반 도시재생'이 중요함. 지방도시의 오래된 상권, 골목, 전통주택 등을 '지역 문화유산+생활 자산'으로 간주하고 보호·활용하는 방안 마련,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 콘텐츠와 로컬 브랜드 개발 필요

(2) 융합형 재생모델 도입 필요(지역 상권 + 숙박 + 커뮤니티)

후세의 세카이 호텔은 단독 호텔 운영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동네 전체를 호텔처럼'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산형 마을호텔 개념을 실현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숙박업을 넘어 관광객의 소비와 경험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창의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 정책제언 :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숙박시설'은 보통 수익사업으로만 이해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 구조는 미흡한 경우가 많음. 반면 후세 모델은 상권이 '호텔의 일부'로 기능하는 협력 모델을 실현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도 '분산형 마을호텔', '생활관광 숙소' 등 로컬 상권과 연결된 숙박모델 도입을 연구함으로써, 빈집 또는 유휴 상가 리모델링 시, 관광객 체류 기반의 공간 기획을 정책지원 범주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숙박업 + 상점 제휴형 상생 인센티브(예: 지역 화폐 지급, 숙박객 제휴 할인 등) 제도화

(3) 도시 재생의 지속 가능한 핵심은 '주민 공동체'

후세 마을은 상점가 쇠퇴 이후에도 잔존한 노포, 커뮤니티 행사, 청년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이 남아 있었기에, 외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될 수 있었음. 특히 자발적인 상점 제휴, 축제 운영, 공동 이벤트는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 정책제언 : 공동체 기반 없이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함 (예: 주민 거점공간, 커뮤니티 매니저 운영 등). '마을 자치회' 수준의 참여 조직을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운영 주체로 제도화하고, 재생 대상지 선정 시 공동체 활동 여부를 중요 평가 요소로 반영해야 함.

(4) 무리한 개발보다 '마을 용량에 맞는 재생'

세카이 호텔은 "하루 76명의 관광객이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선언했음. 이는 '확장성'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과 마을의 수용력(capacity)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후세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임.

-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일부 도시재생 사례는 외부 관광객 유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도한 외부 자본에 의존해 지역 기반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음.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수용력 분석'을 반영해 적정 관광, 적정 개

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소규모, 저밀도 관광 정책 중심으로 전환. '지역자산의 영속성'과 '지역민의 삶의 질' 중심으로 성과지표 재설계.

(5) 빈집 문제는 위기이자 기회, 지역이 주도하는 소규모 전환 필요

후세 마을의 핵심 자원은 '방치된 빈집'임. 이를 민간과 행정, 커뮤니티가 협력해 관광자산 및 지역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빈집 문제를 오히려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었음.

- 정책제언 : 국내 지방도시도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주택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 정책 차원에서 재정의 해야 할 시점.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민간 주도의 빈집 활용 실험 지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지역 주민과 상점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예산 신설. '빈집 은행' 등 지역 커뮤니티가 관리 주체가 되는 제도 마련

— 4. 방문지 주요 현장 사진





나라현

아스카무라 마을

1. 개요

- 인구 약 5,500명
- 홈페이지 <https://www.asukamura.jp/>
- 주소 〒634-0142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大字橘21番地
- 주요 내용 고령화 대응 위해 이주 촉진 및 출산 지원 추진
- 담당자 明日香村役場地域振興課 中村優子 課長
- 연락처 0744-54-2001

2. 방문지 주요내용

(1) 아스카무라 마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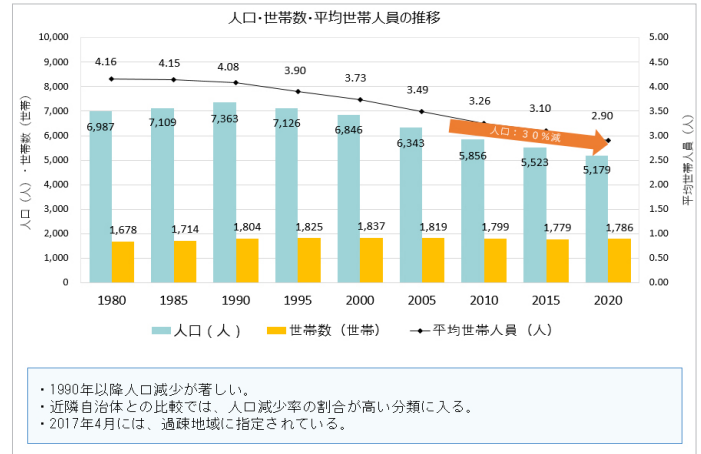
아스카무라(明日香村)는 일본 나라현 중부, 다카이치군에 속해 있는 인구 약 5,000여 명의 농촌 마을이다. 일본 고대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갖는 지역으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말까지 일본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아스카 시대(飛鳥時代)의 수도 역할을 했던 장소다.

아스카무라는 일본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가 형성되었던 고대 일본사에 있어 상징적인 장소로, 다수의 고대 궁궐 터와 석조 유적, 고분, 사찰 등이 산재해 있다.

오늘날의 아스카무라는 이러한 역사·문화 자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대 도시화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스카무라는 일본 내에서도 드물게 "경관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마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광이 경제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아스카무라 마을의 인구 변화 추이

(2) 아스카무라 마을 주요 특징

2.1 역사유산의 보고

아스카무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대 일본사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전역에는 일본 최초의 수도였던 아스카궁(飛鳥宮), 석불로 유명한 아스카데라(飛鳥寺), 거대한 거석 조각상인 이시부타이 고분(石舞台古墳), 다카마쓰 고분(高松塚古墳) 등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이들 유적은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일본인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며, 아스카무라의 상징적 자산이다.

2.2 경관 보존 정책과 전통 마을 구조

아스카무라는 1966년 제정된 「아스카 특별조례」를 통해 고층 건물의 건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통 가옥의 외관 유지, 광고물 제한, 도로 정비 등에 있어 역사적 경관과 조화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처럼 유지되고 있으며, '살아 있는 유적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2.3 농업 중심의 생계 구조

마을 주민 대다수는 벼농사 및 채소 재배 등 전통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농·지역 브랜드화 등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가는 농업 체험 프로그램, 민박, 로컬푸드 레스토랑 등을 병행함으로써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4 관광 기반 지역경제

아스카무라는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일본 내 대표적 역사관광지다.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순회하거나, 유적 가이드 투어, 계절별 꽃 축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스카의 매력을 체험한다. 특히 도심과는 다른 조용한 분위기와 자연, 역사적 감성이 결합된 '슬로우 투어리즘'의 상징지로 자리잡고 있다.

(3) 아스카무라 마을의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 방안

아스카무라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5%가 65세 이상이며, 출생률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스카무라는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1 역사 관광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아스카무라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 역사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 강화: 아스카데라, 다카마쓰 고분 등 유적을 중심으로 디지털 가이드, AR(증강현실) 체험, 야간 조명 전시 등 현대 기술을 접목한 해설 콘텐츠 개발.
- 에코 투어리즘 및 자전거 관광 확대: 자전거 도로 정비 및 공유 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통해 친환경 관광 모델 구축.
- 지역 가이드 육성 및 다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춘 전문 가이드 양성, 다국어 홈페이지 및 앱 운영.



3개의 역사존으로 구분하여 역사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3.2 청년 및 가족 정착을 위한 주거·일자리 지원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이주 지원금 제도 운영 : 젊은 부부와 창업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과 이주 정착 지원금 지급.
- 지역 농산물 가공 및 판매 기반 창업 지원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카페, 민박 운영 등에 대한 창업 보조금 지급 및 컨설팅 제공.
- 재택근무 기반 인프라 확충 : 인터넷 환경 개선, 공유 사무공간 조성 등을 통해 외부 기업에 소속된 인재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3 교육·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딩

-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 : 아스카의 역사자산을 활용한 초·중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술·문화 레지던시 유치 : 예술가, 사진작가, 학자 등을 초청하여 아스카를 주제로 한 작품 창작 지원. 이를 통해 지역 홍보 효과 및 새로운 인구 유입 가능성 확대.
-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 자매도시나 외국 대학과 연계하여 단기 체험, 워크숍, 홈스테이 등을 통해 아스카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3.4 마을 주민 주도형 지역재생 모델 구축

마지막으로, 아스카무라는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장기적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 마을 포럼 및 워크숍 운영 : 정기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 운영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 지역통합형 관광운영 협의체 구성 : 농업인, 상인, 관광사업자, 행정 등이 연합한 협의체를 통해 관광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자원 분배의 형평성 확보.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1) 역사·문화자산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 핵심 자원

아스카무라는 고대 일본의 수도이자 국가 형성의 상징 공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을 전체를 '살아 있는 유적지'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도시화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재생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 정책제언 :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일수록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스토리)'가 경쟁력이 되므로, 도시와 동일한 산업구조 모방이 아닌 역사·문화 기반 특화전략을 세워야 함. 국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에 산재한 문화유산, 구전 설화, 마을의 기억 등을 지역개발 자원으로 전략화. 문화재 중심 도시재생, 생활문화와 연결된 마을 기록사업, 문화자산 활용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

(2) '경관 보존'을 지역 운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

아스카무라는 '아스카 특별조례'를 통해 고층건물, 간판, 도로 등을 역사 경관과 조화되도록 엄격히 규제하며, 경관 관리 자체를 마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음. 이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공간의 품격'을 유지하려는 지역 전체의 의지이자 철학.

- 정책제언 : 도시화 경쟁에서 벗어나 정체성과 품격 중심의 공간 전략을 택하는 것이 중소 농촌의 생존 방식이 될 수 있음. 경관 보존은 관광·주거·생활환경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다차원적 전략이 될 수 있음. 경관보존형 지역계획 도입, 주민 참여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3)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다기능 농촌' 모델 구현

아스카무라는 벼농사·채소 재배에 기반을 둔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유기농, 체험형 관광, 로컬푸드 가공 등을 결합하여 농업의 다기능화에 성공하고 있음. 단순한 생산을 넘어 문화와 체험이 있는 농업으로 재정의.

- 정책제언 : 고령화된 농촌에서도 농업은 여전히 지역 경제와 관광을 잇는 핵심 인프라. 농업을 전통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자원, 교육자원, 관광자원으로 전환. 체험형 농촌 관광(팜투어, 민박, 로컬푸드 클래스 등)을 지역 농가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환 지원
농촌 고령농 + 청년 창업의 협업 모델 유도. 고령농이 기술 전수, 청년이 브랜딩·판매 담당

(4) 청년 유입 및 이주 정착을 위한 촘촘한 생활 기반 조성

아스카무라는 이주자에게 주택과 창업을 연계한 패키지를 제공하며, 공유사무실·재택근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외부 인재의 '생활 거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정책제언 : 단순한 주거 공급만으로는 인구 유입이 어려움.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관광·농업·디지털 노동 등 지역 기반 산업과 연결된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유입이 지속됨. 청년 이주자 맞춤형 '지역 창업·주거·생활 패키지' 모델 개발. 비도심 원격근무 인프라(공유오피스, 인터넷망 등) 구축 및 도시 외 거주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등.

(5) 주민 주도형 마을 운영이 지역 생존의 기반

아스카무라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포럼, 워크숍, 관광 협의체 등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마을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이는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기반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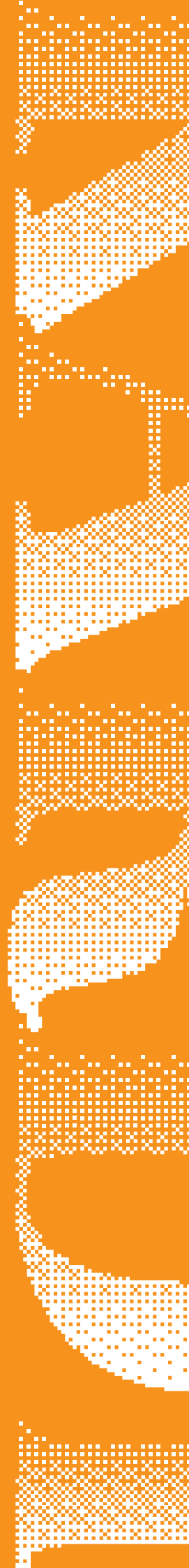
- 정책제언 :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함. 마을을자치회, 주민포럼에 일정 예산과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지원 제도화. 관광·농업·주거 등 지역정책 분야별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 4. 방문지 주요 현장 사진



사례 조사

5



모드 학원 스파이럴 타워즈

1. 개요

- 설립 2008년
- 홈페이지 <https://www.mode.ac.jp/nagoya/>
- 주소 〒450-0002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四丁目27番1号
- 주요 내용 나고야역 초고층 복합 건물

2. 방문지 주요내용

(1) 개요

모드학원 스파이럴 타워즈는 나고야역 바로 앞, 옛 나고야 미츠이 빌딩 남관·동관 부지에 세워진 지상 36층·지하 3층, 높이 170m의 초고층 복합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패션, IT, 의료 분야 3개의 전문학교(나고야 모드학원, HAL 나고야, 나고야 의료전문학교)와, 최근에는 나고야 국제공과전문직대학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상 2~36층은 교육 공간이고, 1층 및 지하 2층까지는 '스파이럴 타워즈 SHOP & RESTAURANTS'란 이름으로 16개 상업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주차 공간은 지하 3층에 73대 규모로 마련되어 있다.

(2) 역사

2005년 10월 착공을 시작한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낡은 나고야 미츠이 빌딩을 재개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2008년 3월 25일 준공과 함께, 26일에는 교육 시설이 개장했으며, 이어 상업시설은 4월 11일 정식 오픈했다.



(3) 주요 특징

3-1. 독창적 외관과 설계 개념

螺旋(나선) 형태 디자인은 “시대의 최첨단 에너지를 지닌 학생들이 서로 자극하며 상승해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2008년 굿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외벽을 감싸는 삼각형 프레임 유리 패널은 각기 크기가 달라 독특한 시각 효과를 창출한다. 외관의 나선 구조는 3개의 윙(wings)이 건물을 감싸듯 돌면서, 창문 하나하나가 각 층마다 3도씩 비틀려 설계되었다.

3-2. 구조 및 내진 설계

- 인너 트러스 튜브(inner truss tube) : 중앙을 통과하며, 엘리베이터와 수직 샤프트가 내재된 튜브 구조로, 건물 전체의 비틀림을 견디는 핵심 골격 역할을 담당한다.
- 제진 시스템 : 최상층에 약 250톤의 제진용 추(weight)를 설치해 지진 시 흔들림을 크게 억제한다.
- 제진 컬럼 완비 : 윙 부분엔 26개소에 진동 흡수용 컬럼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진 및 내풍 성능 면에서 국토교통대신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3-3. 상업시설 및 교육 환경

스파이럴 타워즈 SHOP & RESTAURANTS는 2008년 4월 11일 오픈했으며, 16개 상점 구성, 식음료·서비스·미용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한다.

교육 시설은 각 분야 실습을 위한 최첨단 장비와 공간(포토 스튜디오, 모션 캡처 실, 로봇 연구실, 구급 실습 공간, 헤어-메이크업 살롱, 게임 스튜디오 등)이 충실하며, 4층에는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멀티홀, 36층엔 게스트 라운지를 갖추어 외부 이용도 가능하다.

3-4. 수상 및 건축적 가치

- 2008년 : 굿디자인상 수상
- 2008년 : 제40회 주부건축상 입상
- 2009년 : 아이치 가로경관 건축대상 대상 수상, JSCA(일본건축구조기술자협회) 작품상 수상
- 2010년 : 일본건축학회 작품집 선정

3-5. 상징적 조형물

정면엔 플로리안 클라알(독일 작가)의 “무브먼트 No.7 미노토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조형물 자체가 공기 유입 탑(환기탑) 역할도 병행한다. 야간엔 네온사인과 랜덤 라이트 연출, 3개의 푸른 서치라이트가 외관 효과를 더욱 강조하며, 나고야역 앞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4) 맺음말

모드학원 스파이럴 타워즈는 나고야역 전면 재개발의 중심에 세워진 초고층 교육·상업 복합 건축물로, 혁신적 나선형 디자인과 최첨단 실습 환경, 강력한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예술적 조형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다. 교육 목적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 현대 건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 사례 조사지 주요 현장



주요 사진

1. 개요

- **설립** 1887년(초대 개업) 1997년(현행 역빌딩 완공)
- **홈페이지** <https://www.jr-odekake.net/eki/top?id=0610116>
- **주소** 〒600-8216 京都府京都市下京区東塩小路町
- **주요 내용** 일본 복합 철도역

2. 방문지 주요내용

(1) 개요

교토역은 현행 4대 역사로, JR 서일본, JR 도카이(신칸센), 긴테쓰 전철, 교토시 지하철이 모두 이용 가능한 일본에서 드문 복합 철도역이다. 건물 전체가 높이 약 59.8m, 폭 470m, 연면적 약 238,000㎡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물이며, 역내에는 백화점(예: 이세탄), 호텔, 극장, 미술관 '에키 KYOTO', 상점가 '더 큐브', 대형 계단, 옥상 전망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교토의 우주선 모태'라 불리는 웅장한 중앙 아트리움은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60만 명에 달하며, JR 서일본 관내에서는 오사카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2) 역사

2-1. 1대 역사 (1877년 개업)

1877년 2월 5일 교토역은 간사이 지방 철도망 확장 과정에서 정식 개업하였으며, 당시 붉은 벽돌 2층 목조 구조로, 메이지 천황의 출석 하에 개업식을 거행했다.

2-2. 2대 역사 (1914년 완공)

1914년 대정 시대, 목조 구조로는 일본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은 2대 역사가 착공되어 개통되었고, 화려한 귀빈실 등으로 주목받았다.



2-3. 3대 역사 (1952년 재건)

1950년 화재로 2대 역사가 소실된 후, 1952년 철근 콘크리트로 구축된 3대 역사가 완공되어 기능주의적 설계를 반영하였다.

2-4. 4대 역사 (1997년 완전 개조)

1990년 국제 설계 공모에서 하라 히로시 원고(原弘司)가 당선되어, 고대 평안도 천도 1,200주년을 기념해 1997년 7월 12일 현재의 4대 역사가 완공되었다. 이 건축물은 당시 일부 주민들로부터 “교토의 전통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토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3) 주요 특징

3-1. 건축미 및 공간 설계

- 거대한 중앙 아트리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은 느낌을 주며, 자연광이 풍부한 고층 구조로 설계되었다.
- 171단 대계단: 중앙 부에 30m 높이, 171단의 스테어케이스는 역사와 교토 분지를 상징하며, 이벤트나 콘서트 등의 무대로도 사용된다.
- 유리 ‘공중 통로’: 중앙 광장 위 높이 약 45m 위치에 설치된 투명 유리 통로는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3-2. 다기능 복합 시설

- 상업·휴게 공간: 이세탄 백화점, 더 큐브 전문점가, 카페·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어 쇼핑 및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문화시설: 「교토 극장」, 「에키 KYOTO 미술관」, 호텔 그랑비아, 관광 안내소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 교통 허브 기능: JR(신칸센·재래선), 긴테쓰, 지하철 접근이 용이하며, 지하 상점가 포르타(Porta)와 직접 연결된 통로를 갖추고 있다.

3-3. 도시 즉흥 이벤트 공간

- 대계단 활용 콘서트 및 계단 오르기 대회: 겨울철 대계단을 오르는 행사(2월마다)가 개최되며, 스테어케이스는 계절마다 다양한 퍼포먼스 무대가 된다.
- 옥상 전망대: 시야가 확보된 옥상은 교토 시가지 및 야경을 관람하기에 좋은 장소로 운영된다.

(4) 맺음말

교토역은 1997년 완성된 4대 역사를 중심으로, 철도 교통 기능을 넘어 상업·문화·관광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 공간이다. 전통적인 교토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전위적 건축미,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서 현대 도시 기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3. 사례 조사지 주요 현장



주요 사진

린쿠 타운

1. 개요

- 설립 1995년
- 홈페이지 <https://rinkutown1.jimdofree.com/>
- 주소 大阪府泉佐野市りんくう往来北1番 및 りんくう往来南
- 주요 내용 인공 매립 도성위에 건설된 공항 관련 도시

2. 방문지 주요내용

(1) 개요

린쿠타운은 오사카의 『간사이국제공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인공 매립 도시로, 공항의 개항과 맞춰 1986년부터 매립과 개발이 진행되었다. 매립 면적은 약 318.4헥타르에 달하며, 그중 약 129.7헥타르가 상업·업무·산업 관련 용지로 구획되어 있다. 이 구역은 상업업무, 유통·제조·가공, 주택관련, 공항관련, 공업단지 등 5개 존으로 나뉘어 각기 기능적으로 조성되었다. 도심적 기능과 관광 기능을 병행하는 복합 도시로 설계되었으며, 국제 교류의 거점이자 공항 지원을 위한 도시라는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2) 역사

2-1. 초창기 구상 및 매립 계획 (1986-1991)

1986년 오사카부(大阪府)가 간사이공항 반대편 해안을 매립하여 공항 관련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공표하고, 1987년 매립 면허를 취득, 같은 해에 매립 공사를 착수했다. 1988년에도 매립 작업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개발 초기에는 ‘스카이 게이트 브리지’ 남단부에 50층급 고층빌딩 2동 등 초대형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해당 계획의 대부분은 사실상 동결되었다.



2-2. 마을개장과 초기 상업공간 형성 (1992-2003)

1992년 이후 일부 상업·물류·공장 관련 부지에 기업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9월에는 상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립이 완료된 1996년 가을, 「まちびらき」로 공식 개장하였으며, 이 시점의 부지 분양 계약률은 약 30%에 불과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 지연 속에서도, 2001년부터 분양 정책과 임대방식 등을 변경하여 점진적인 활성화를 추진했다.

2-3. 활성화와 랜드마크 조성 (2003-2010)

2003년 시점부터 「定期借地権」제도의 도입과 분양가 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를 강화했고, 그 결과 아마다電機, 니토리, 스포츠데포 등 대형 유통시설이 속속 개점했다.

2004년에는 가족·레저 중심 시설인 「りんくうプレジャー타운SEACLE」과 관람차가 완성되어 관광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7년 12월 8일에는 대형 놀이·레저 시설이 정식 개장했다. 2008년에는 국토교통성의 항공안전사무를 담당하는 「항공보안대학교」, 2009년에는 오사카부립대학교 りんくう캠퍼스가 개교하며, 교육·의료 분야도 확대되었다.

2-4. 완전 계약 달성과 현재 (2012-2019 이후)

2011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제 의료 교류 거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クールジャパン フロント構想」을 포함한 종합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었다. 2013년 로토제약이 의료관광 시설 부지를 매입하며 국제 의료 교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스케이트 링크 계획 수립도 이루어졌다. 2019년 2월, 마지막 매립지 매각이 완료되면서 전체 토지 계약률 100%를 달성하며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연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공항 지원 및 관광 중심 부도심으로 기능하며, 오사카 도시 경관 백경(百景)에도 선정되어 있다.

(3) 주요 특징

3-1. 교통 및 입지

관계사 고속철도(남해공항선, JR 한와선)가 운행하는 りんくうタウン駅을 중심으로, 국제공항과 직결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阪和自動車道, 관서국제공항도로) 및 주요 IC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유동 인구 유입이 원활하다.

3-2. 상업·레저 시설

- りんくうプレミアム・アウトレット : 서일본 최대급 아울렛, 약 250개 브랜드가 입점. 미국 남부 Charleston 도시 컨셉으로 조성되어 리조트 분위기를 내고있음.
- りんくうプレジャー타운SEACLE : 대관람차(85m) 포함 레저복합시설로 가족 단위 방문객 중심의 즐길 거리 제공.
- 이온몰 りんくう泉南 : 음식·의류·생활용품 등 16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쇼핑몰

3-3. 공원·자연 공간

- りんくう公園 : 간사이공항 전경이 가능한 공원으로, 야경·분수를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
- マーブルビーチ : 백색 대리석을 깔 해안선(2.8km),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에게 인기 있는 장소
- タルイサザンビーチ : 여름철 해수욕이 가능한 해변으로, 가족 휴양지로 활용

3-4. 랜드마크 건축

- SiSりんくうゲートタワービル : 높이 256m, 56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국제회의장·호텔·업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오사카부 내 세 번째 높이의 건축물이며, 야간에는 비행기 이착륙과 연계된 조명 연출로 「공항의 관문」 같은 독특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3-5. 기능적 다양성 및 도시 기능

- 물류·산업 기지 : 공항 물류, 제조 및 공업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국제 교역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의료 기관 유치 : 2008년 이후 항공보안대와 대학 캠퍼스, 국제 의료교류시설 등이 차례로 들어서며 지역 기반시설이 강화되었다.
- 문화·관광 기능 : 쇼핑과 레저, 해변 산책, 국제회의 개최 등이 결합된 복합형 공항 지원 도시로 진화하였다.

(4) 맺음말

りんくうタウン(린쿠타운)은 공항 연계 복합 매립 도시로서, 매립 → 거대한 초기 개발 구상 → 버블 붕괴로 인한 좌절 → 상업 및 인프라 확충 → 계약을 100% 달성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도시의 주요 특징은 공항과 직결된 접근성, 다각적 레저·산업·교육·의료 기능, 초고층 랜드마크, 해변 및 공공공간에 있다. 이런 복합적 결합으로 인해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오사카를 대표하는 부도심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 3. 사례 조사지 주요 현장



주요 사진

EXPO 2025 OSAKA

1. 개요

- 전시회명 EXPO 2025 OSAKA, KANSAI, JAPAN
- 일정 2025년 04월 13일(일) - 2025년 10월 13일(월)
- 주소 大阪 夢洲(ゆめしま)
- 홈페이지 <https://www.expo2025.or.jp/>

2. 오사카 EXPO 주요내용

(1) 오사카엑스포 전시회 개요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Expo 2025 Osaka, Kansai, Japan)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공인한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po)로, 전 세계가 참여하여 인류의 공동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대형 국제 행사다.

이 박람회는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84일간 열리며,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고노하나구의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 개최된다. 유메시마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대규모로 재개발된 부지이며, 박람회 이후에는 첨단 산업 및 스마트시티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 오사카엑스포 전시회 주요 전시 내용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우리의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국가와 기업, 단체들이 미래 사회의 방향성과 해법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는 자리다. 박람회는 전통적인 국가관을 넘어, 기술, 문화, 환경, 생명, 인간 존엄성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복합적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박람회의 전시 콘텐츠는 크게 국가관, 테마관, 공유 공간(시민 참여형 전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국가관 (Participants Pavilions)

전통적인 세계박람회의 핵심은 국가별 전시관이다. EXPO 2025에서는 약 150개 국가와 25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각국은 자국의 문화, 기술, 사회 모델, 미래 비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 자유형 국가관: 자국이 독립적으로 설계 및 건설한 전시관.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UAE 등은 독자적인 건축물을 통해 자국의 미래상과 혁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 공동형 국가관: 여러 국가가 함께 하나의 전시관을 공유하며, 소규모 국가들이 주로 참여한다. 아프리카, 카리브 해 지역,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해당된다.

2.2 테마관 (Signature Pavilions)

테마관은 박람회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총 8개로 구성된다. 이들은 BIE가 제시한 부 주제 및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해 설계되었다. 각 테마관은 세계적인 전문가, 과학자, 예술가들이 큐레이션을 맡았으며, 방문객들에게 몰입형 체험을 제공한다. 각 테마관은 예술과 과학, 기술과 인간성의 융합이라는 철학 하에, 다중 감각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폭 넓은 연령층을 고려한 큐레이션이 특징이다.

2.3 공유 공간 및 시민 참여 전시

2025 오사카 엑스포는 시민 참여형 엑스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공유형 파빌리온” 및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공간은 NGO, 청년 그룹, 시민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공공 실험실’의 성격을 띤다.

(3) 오사카 엑스포 전시회 주요 특징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삶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기획된 차세대 엑스포로,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박람회의 틀을 확장하고 있다.

3.1 사람 중심의 철학적 주제 설정

EXPO 2025의 주제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우리의 삶을 위하여(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로, 기존 엑스포가 기술, 산업, 국가 경쟁력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삶의 질’, ‘공동체 회복’, ‘인간 존엄성’을 중심에 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인간의 행복과 웰빙을 중심에 둔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과 토론, 협업의 장이자 국제적 의제 설정의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엑스포 전반에 걸쳐 인간 중심의 가치가 강조되며, 전시 디자인, 참여 방식, 체험 구성 모두 이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3.2 Co-Creation (공창, 共創)의 실현

이번 박람회의 핵심 운영 개념은 ‘공창(Co-Creation)’이다. 이는 정부, 기업, 시민, 청년, 국제기구 등이 협력과 공동 창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참여 방식의 다변화: 참가국과 기업뿐 아니라, 시민, 학생, 스타트업, 지역 공동체까지 다양한 주체가 엑스포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처럼 Co-Creation은 전시의 철학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핵심 구조이며, 엑스포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기반을 제공한다.

3.3 지속가능성 중심의 공간 설계와 운영 전략

EXPO 2025는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형 박람회를 지향하며, 개최지 유메시마 섬 자체가 스마트 시티와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의 실증 공간으로 기능한다.

- 제로 카본 전시공간: 태양광, 수소 연료,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극 활용해 엑스포 기간 중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 대부분의 시설물은 재활용 가능한 구조물로 지어지며, 박람회 종료 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나 첨단 연구시설로 전환된다.
- 모빌리티 혁신 실현: 자율주행 셔틀, 전기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차세대 이동수단이 실증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교통 환경 구축과도 맞닿아 있다.

3.4 박람회 이후까지 고려한 ‘레거시 전략’

오사카 엑스포는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유산(legacy)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유메시마의 재개발: 박람회 종료 후 유메시마는 ‘스마트 혁신 도시’, ‘의료 바이오 허브’, ‘관광 및 마이스

(MICE) 중심지'로 전환되며,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된다.

- 기술 실증의 확산: 엑스포에서 선보인 스마트 기술,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모빌리티 등은 이후 일본 및 국제 사회의 표준 기술로 확산될 계획이다.
- 시민역량 강화: 박람회를 통해 훈련된 자원봉사자, 청소년 기획자, 지역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는 엑스포 이후에도 지역 사회 변화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오사카 엑스포 전시회 '한국관'

대한민국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국가관을 직접 설계·건축하는 독립형 전시관 참가국에 속한다. 한국관은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미래(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인간 중심 가치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표현한다.



4.1 한국관 기본 개요 및 건축 철학

- 위치: 유메시마 전시 구역 내 아시아 국가관 중심부
- 면적: 약 4,000 내외
- 설계 콘셉트: '열린 광장(Open Agora)' - 경계 없는 소통의 공간을 상징하며, 자연과 기술,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조

건축 특징: 곡선형 지붕과 유기적 형태의 외관은 한국 전통 건축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지속가능한 소재(리사이클 유리, 목재, 태양광 패널 등)를 사용하여 친환경 설계 실현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 작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공간적 상징으로 구현

4.2 전시 구성 및 콘텐츠

한국관은 총 3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대한민국과 인류의 연결을 조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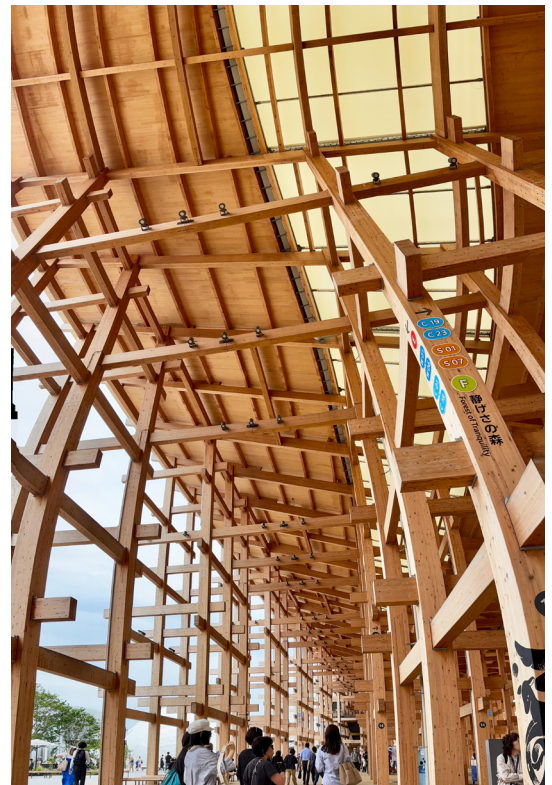
- 플로그: “연결의 시간”
입구 공간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한국의 역사, 문화, 기술, 자연을 시각적으로 압축해 보여준다. 전통과 첨단 기술이 연결된 ‘시간의 터널’을 지나면서 관람객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세계 속 위치를 체감하게 된다.
- 메인 전시관: “함께 만드는 내일”
디지털 인터랙티브 전시 중심. AI, IoT, 바이오, 로봇, 그린에너지 등 한국의 미래기술을 시민 중심으로 체험 가능하게 구성
- “탄소중립 도시” 모형관: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대중교통 혁신 등의 실물
- 모형 및 AR 체험 가능
- “K-의료 & 바이오 헬스관”: 한국의 정밀의료, 감염병 대응 시스템, 디지털 치료제 등 소개
- AI 기반 참여형 전시: 관람객의 행동에 따라 전시 내용이 달라지는 AI 연동 콘텐츠 포함

4.3 한국관에 대하여

한국관은 단순한 국가 브랜드 홍보를 넘어,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사회의 모델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 기술력, 문화력, 포용적 사회 모델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고도화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적 연계 효과 : 한국 기업의 기술 및 산업 홍보를 통한 국제 협력 확대, 수출 판로 개척, 투자 유치 기대하고 있음
- 외교적 파급력 : 일본 내 시민사회와의 문화 교류, 한일 간 청년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의 토대 마련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EXPO 2025 오사카에서의 한국관은 문화·기술·가치의 통합적 메시지를 담은 미래형 전시관으로, 한국의 미래비전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다. 이는 단발성 박람회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과 문화 외교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상반기 교육연수
**지속가능 미래도시 전략수립과
재난안전 시스템 선진사례 연구**
결과보고서

발행인 오 균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처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사무국(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문서는 2025년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사무국이 교육연수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연수참여기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